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7월 / 통권 49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상 가 쟁 영 만 진 도
 象 駕 崢 嶸 漫 進 途 라
 수 당 랑 능 거 월
 誰 螳 螂 能 拒 轍 가

큰 꼬끼리에 수레를 메어 위풍당당하게 끌고 가는데
 어떤 당랑이가 능히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대 상 불 유 어 토 경
 大 象 不 遊 於 兔 徑 이 요
 대 오 불 구 어 소 절
 大 悟 不 拘 於 小 節 이 라

큰 꼬끼리는 토끼의 길에 놀지 않고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바다와 같이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법희선열 (法喜禪悅) / 무경스님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12

알림마당 · 13

백중기도 접수 안내

칠석기도 법회 안내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고맙습니다

20주년기념 특별 템플스테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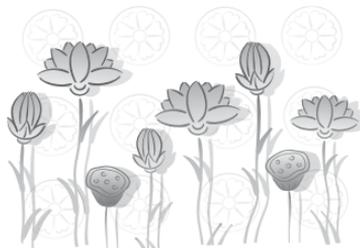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바다와 같이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이른 아침에 뒀안길을 산책하며 잠시 용연 폭포에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물줄기를 바라본다. 밤새워 절벽을 타내라는 물줄기는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고 흐른다.

함월산에서 시작된 용연폭포 물줄기는 흐름이 그다지 길지 않아서 불과 수십 분이면 종착지에 도달한다. 종착지인 바다가 발원지에서 불과 수십 리에 지나지 않아서다.

중국의 장강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6천 3백 킬로를 흐르고 흘러서 중국 서부와 중부와 동부에 물을 공급하여 젖줄 역할을 하면서 동해로 흘러들어 바다의 너른 품에 합류한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프리카의 나일강이다. 길이가 6천 6백여 킬로에 이르며 에티오피아, 수단,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부룬디, 이집트, 콩고 등 무려 11개 국가를 흐르며 생명수 역할을 하며 흘러간다.

물 흐르는 길을 물길이라 하며 작은 물길은 냇물. 큰 물길은 강이라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특성을 따라 어디로든 낮은 곳을 찾아 하염없이 흐른다. 물은 그렇게 산에서 시작되어 줄기차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강물은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곤두박질을 쳐야 한다. 굽이진 골짜기를 만나면 휘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더러는 썩은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더러는 흙탕을 뒤집어써 맑은 본연을 잃기도 한다.



물은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원천이다. 사람도 물에서 처음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모든 생명체도 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학설이 정립되어 있다. 물 없는 곳에서는 사람은 물론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을 탐사하는 초점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맞추어지고 있다. 물이 있으면 그 곳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기에 더 큰 관심 대상이다. 물론 물이 있으면 이용 가치도 더 높아진다.

지구상의 모든 문명은 강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 하고, 인도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 하며,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이루어진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를 만나 기약 없는 방역의 사투를 벌이며 언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지 모를 힘겹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결코 삶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구비구비 고통을 거치며 그래도 하염없이 흘러야 하는 강물과 많이 닮아있다.

“흐르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옛 말씀이 있다. 한문

으로 적수천석(滴水穿石)이다. 비록 힘없는 물방울이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흐르면 언젠가 돌을 뚫게 된다는 말이다. 끊임없는 노력이 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뜻이다.

불가의 옛 어른들께선 물 흐르듯 살아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나대면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역사를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다.

출가 초심을 다져주는 말씀 중에 “나이 많은 이는 형으로 섬기고 나이 어린 사람은 아우로 사랑하여 서로 화합할지언정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 절대 다투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모인 회상은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도무지 다툼을 벌이지 않는 바다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다.

법희선열 (法喜禪悅)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먹방 유튜버들이 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먹는 사람들이다.

필자도 라면을 좋아하고 작은 덩치도 아니지만, 한번에 두 봉지를 끓여 먹는 것에는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필자보다 키도 작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 한번에 20봉지가 넘는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뱃속에 저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전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한가지 음식을 질러하지 않고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

불교에서는 일반인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신비한 초능력을 '신통력'이라고 하는데, 21세기에 초능력자들은 이런 먹방 유튜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신도님들 앞에서 웬만하면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보살님께서 '스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으신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갓 출가한 햇병아리 시절이라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즐겨 먹던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 10일 내내 이 보살님 저 보살님 손에 이끌려 짜장면을 먹어야 했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짜장면이 너무 질려서 볶음밥을 시켜 먹었는데, 그날 점심 공양을 내신 보살님께서 '스님, 짜장면 좋아하신다고 소문났던데 아닌가 보네요?'하시는 거였다.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울컥해서 '보살님, 제가 아무리 짜장면을 좋아해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9일 내내 먹습니까?'하고 투명스럽게 대꾸한 적이 있다.

우리가 농담처럼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나?'라고 말을 하듯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사바세계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가지만 매일 먹게되면 질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두가지 음식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음식은 법희식(法喜食)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맛보면 환희심으로 가득찬다고 해서 음식에 비유한 것이다.

두번째 음식은 선열식(禪悅食)이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선정의 경지를 맛보는 것이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두가지 음식은 쌀밥에 고깃국처럼 몸을 살찌우는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나 좋은 글귀처럼 마음을 살찌우는 정신적인 음식을 말한다.

그런데 극락세계에서나 맛 볼 수 있는 두가지 음식은 다행히 우리 중생들의 사바세계에서도 충분히 맛 볼 수 있다. 바로 정성 다해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듣는 것과 같아서 법희식을 먹는 것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경전을 집중해서 읽는 것은 선정에 드는 것과 같아서 선열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법희식과 선열식을 이 사바세계에서 맛 볼 수 있으면, 사바세계가 곧 극락세계가 되고, 자기가 앉은 자리가 곧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위대한 보살님들의 옆자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광사에는 49일간 백중기도를 맞이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영혼들이 모두 극락세계의 두가지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지장경>이란 음식을 거나하게 차려 두고 있다.

대광사 신도님들 모두 이 한여름의 극락 잔치에 참석하셔서, 지혜가 늘어나는 맛, 마음이 맑아지는 맛, 업장이 사라지는 맛, 복을 쌓는 맛, 좋은 인연을 만나는 맛,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맛을 질리지 않고 배부르게 드셨으면 좋겠다.



◎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 ◇ 7월 1일 : 백중기도 초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8일 : 백중기도 2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13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7월 15일 : 백중기도 3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2일 : 백중기도 4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9일 : 백중기도 5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3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칠석기도 법회

- 입 재 : 8월 2일 오전 10시 설법전
- 회 향 : 8월 4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 2만원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 입 재 : 8월 9일 오전 10시
- 회 향 : 11월 7일 오전 10시
- 동참금 : 1인당 10만원



대광후원회

(2022.5.18.~2022.6.17)

| | | | |
|------------|------------|---------------|------------|
| 변창인 20,000 | 박미애 10,000 | 조인우 10,000 | 정연수 60,000 |
| 박성봉 50,000 | 김병문 20,000 | 조우현 10,000 | 후원금 30,000 |
| 박수현 50,000 | 윤소영 20,000 | 조한분 50,000 | 공상섭 50,000 |
| 황두관 10,000 | 오현철 20,000 | (주)카택 300,000 | |
| 김경남 20,000 | 정대식 50,000 | 박진호 100,000 | |
| 정진이 10,000 | 배수진 30,000 | 배동현변화사 50,000 | |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송성수 1만원 송종화 1만원 공미애 5만원
피교순 1만원 오현우 5만원 양재봉 1만원

백중기도 접수

- 입재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초재 : 7월 1일 ■ 2재 : 7월 8일
- 3재 : 7월 15일 ■ 4재 : 7월 22일
- 5재 : 7월 29일 ■ 6재 : 8월 5일
- 회향 : 8월 12일 오전 10시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20주년기념 특별 템플스테이

라떼 템플스테이

- 참가대상:
20/30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최대 4인)
자녀(1983년 ~ 2002년 출생자, 신분증 확인함)
- 프로그램: 휴식형
- 참가비: 1인당 3만원





온라인 입금 안내

| | |
|-------------------------|-----------|
| 경남은행 : 518-07-0096440 | 예금주 - 대광사 |
| 수협 : 921-61-000421 | 예금주 - 대광사 |
| 농협 : 821145-51-042833 | 예금주 - 대광사 |
|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 예금주 - 대광사 |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